

#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 찾아나선다

- 안전취약계층의 취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논의
- 11월 2일(목) 15시, 「제44차 정책소통포럼」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

- ▶ 70대 K씨는 교통신호등이 젊은층 기준으로 녹색등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안전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고 대피소 위치, 활용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정례적인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.
- ▶ 청각장애인 L씨는 화재경보 방송이 나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청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방송의 수어통역 확대가 필요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시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.
- ▶ 이주민 M씨는 안전 예방, 대처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국어 카드뉴스를 제공해주고,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이 필요하고,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화재경보기를 널리 보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.

-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, 고령자 등 대상자별 취약한 특성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?” 라는 주제로 11월 2일(목),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‘제44차 정책소통포럼’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·의사소통·정보접근의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사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.
-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화재와 교통(보행) 사고로 이들에게 안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여 주는 안전디자인 개발과 예방적 차원의 교육·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.

-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장애인,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·편의 중심 맞춤형 제도 정비와 서비스 사례,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.
-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되며,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, 안전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한다.
  -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, 유튜브 ‘정책소통포럼’ 채널([www.youtube.com/@onsotong24](http://www.youtube.com/@onsotong24))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.
- 먼저, 문현철 숭실대학교 교수가 ‘안전취약계층 안전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’ 주제로 취약 특성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한다.
  - 노황우 한밭대 교수는 ‘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례와 개선 방안’ 주제로 안전사고 최소화 및 안전대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디자인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을 제안한다.
  - 이어서 허승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이 ‘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정책현황 및 제도’에 대해 설명한다.
  - 충청북도 소방본부 오동계 소방위가 ‘장애인 화재사고 예방, 안전디자인 사례’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.
  - 또한, 장애인, 고령자, 외국인 당사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화재 등 안전대비를 위해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·대피할 수 있는 방안,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·훈련 필요 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.
-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청, 충북 소방본부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,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.
-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(포럼)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,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.

□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“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, 미리 예방·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을 포용하는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” 며, “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,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말했다.

※ 정책제안과 정책반영 결과는 '소통24'(구 온국민소통) 누리집(www.sotong.go.kr)에서 확인 가능

담당 부서	혁신조직국 정보공개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5-2403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희 (044-205-2425)



□ 행사개요

- 일시/장소: 2023.11.2.(목) 15:00~16:30/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
- 주제: 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?”
- 참석: 발제자(전문가2)\*, 관계부처(행안부, 소방청 등), 국민발언 참여자
- \* 문현철 교수(송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), 노황우 교수(한밭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)

□ 선정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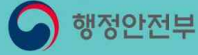
-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
-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안전디자인 개발, 안전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개선

□ 본포럼 진행(안)

- 진행방식: 전문가 정책제언(발표) 및 질의응답·토론
  - 1부(15:00~16:30): 발제 및 자유발언, 채팅토론 등 온·오프라인 진행
  - 2부(16:00~17:30): 현장간담회(10명 내외) 및 소그룹토론 진행

시간계획	세부계획	비고
15:00~15:10	■ <b>개회 및 일정 안내 / 주제 소개</b>	사회자
15:10~15:40	■ <b>전문가 발제</b> •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•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례와 개선방안	문현철 송실대 교수, 노황우 한밭대 교수
15:40~15:50 (10')	■ <b>제도 및 사례소개</b> •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정책현황 및 제도(행안부 안전개선과) • 지자체 안전디자인 사례 발표(충청북도 소방본부)	행정안전부, 충청북도 소방본부
15:50~16:05	■ <b>자유발언</b> • 장애인, 고령자,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발언	자유발언 3명
16:05~16:20	■ <b>질의응답</b> (발제자, 관계부처 등 답변)	발제자, 관계부처
16:20~16:30	■ <b>사후토론, 제45차 포럼 안내 및 마무리</b>	사회자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



### 제44차 정책소통포럼



##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?



안전취약계층을 위한  
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 
무엇일까요?



**일시** 2023년 11월 2일(목) 15:00 ~ 16:30

**장소**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 및  
온라인(유튜브 중계)

**대상**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 
현장 간담회 (선착순 10명)  
온라인 소그룹 토론 (선착순 20명)



제44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QR코드

행정안전부 **정책소통포럼**

## 정책소통포럼 기습퀴즈 풀고 선물받자!

포럼 회차별 20명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.

01 매일 진행되는 정책소통포럼 시청한다.

02 유튜브 채널창에 올라오는 기습퀴즈를 확인한다.

03 유튜브 채팅으로 정답을 보낸다.

행정안전부 **정책소통포럼**

## 정책소통포럼 친구추가하고 선물받자!

격월 20명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.

01 카카오톡을 실행한다.

02 정책소통포럼 채널을 검색하고 친구추가를 한다.

03 친구추가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다.

행정안전부 **정책소통포럼**

## 정책소통포럼 시청인증샷 보내고 선물받자!

격월 20명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.

01 정책소통포럼 시청 화면을 캡처/촬영하여 인증샷을 남긴다.

02 카카오톡을 실행한다.

03 정책소통포럼 채널로 인증샷을 전송한다.